

치 사

원장스님

생명의 기운이 온 우주에 뻗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향기로운 꽃을 주제로 지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진력해 오신 불교지화 장엄전승회 정명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부터 지화(紙花)는 불교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이면서 불국토를 염원하는 신앙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쌍계사 법당에 장엄되었던 20년대의 지화를 재현하였고, 오늘날 쉽게 볼 수 없는 재 장엄의 일부를 전시하였습니다.

한 장의 꽃잎을 만드는 그 마음속에 시방세계의 모든 혼을 담고자 노력해 오신 소중한 정성에 거듭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이 저마다의 원력을 실천해 나간다면 불교문화유산의 전승에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선명한 마디가 되어줄 것입니다.

문화는 곧 한 국가의 힘이며 문화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훌륭한 가교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전시회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마음의 연대를 만들고, 나아가 모두가 염원하는 불교문화 전승이라는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전시회가 많은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루고 모두에게 감동으로 전해지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